

# 미국, 경제회복 느려 화학시장 답답

경기 신뢰도 저하 따라 ... 2003년 화학제품 판매량 1% 증가 그칠 전망

미국경제는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며 지정학적 사건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주택건설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임금이 증가하며 자본지출이 회복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약세, 연료 코스트의 상승 및 테러 위협이 경기 신뢰도를 손상하고 있다.

ACC(American Chemistry Council)는 미국경제가 매우 연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신용도가 낮고 노동 시장이 약세일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자본지출이 반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기업들도 에너지 가격의 상승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지출을 절감하고 있다.

미국의 성장전망은 최근 크게 위축됐다. 미국경제의 2003년 성장률은 2%에 불과하고 2004년 3.5%로 회복될 전망이다. 2003년 몇몇 분기가 정체를 겪고 특히 2/4분기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화학산업은 2002년 상반기 호조를 보였으나 제조업 분야의 회복이 정체됨에 따라 화학사업 또한 회복이 더디다. 화학제품의 총 선적량은 2002년 4610억달러로 전년대비 1.6%가 증가했고 2003년 성장률도 극미한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에너지 가격의 상승 및 소비자신뢰도의 하락이 경기반응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적량은 2003년 47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호의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2004년 회복기 동안 4910억달러로 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hemical Journal 2003/07/28>